



강원FC가 K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역전 드라마를 써냈다. 0-4 열세를 5-4로 뒤집은 믿기 힘든 승리였다. 강원은 23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전에서 4골을 먼저 내줬지만, 후반 25분 조재완의 첫 골을 시작으로 무려 5골을 몰아치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후반 추가시간에만 3골을 넣는 믿기 힘든 기적이었다. 승리 직후 관중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 강원 선수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페인 축구를 대표했던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가 23일 일본 도쿄에서 은퇴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도쿄 | AP뉴시스

토레스 은퇴 선언

8월 23일 J1리그 빗셀 고베와 고별전

일본 프로축구 J1리그 사간 도스의 페르난도 토레스(35·스페인)가 2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축구 수준이 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축구에 임할 수 없다면 축구 인생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해 은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레스는 8월 23일 빗셀 고베와의 경기를 통해 고별전을 갖는다.

1984년생인 토레스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2001년 1군에 데뷔했다. 이후 리버풀, 첼시(이상 잉글랜드), AC밀란(이탈리아) 등을 거쳤고 2015~2016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복귀한 뒤 지난해부터 일본 J1리그 무대에 섰다. 스페인 국가대표로도 전성기를 누렸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럽선수권대회에서 2008, 2012년 연속 우승했고 2010 국제축구연맹(FIFA)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도 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A매치 110경기에 출전해 38골 기록했다. 그는 클럽 어드바이저를 맡아 팀에 잔류할 예정이다. 정지욱 기자

여자월드컵 독일·노르웨이 8강 진출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에서 독일과 노르웨이가 8강에 진출했다. 독일은 23일(한국시간) 프랑스 그르노블의 스타드 뮈르스에서 열린 2019 FIFA 프랑스 여자월드컵 16강에서 나이지리아에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또 다른 16강전에선 노르웨이가 호주에 승부차기 접전 끝에 승리했다. 양 팀은 연장 전후반까지 120분 동안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끝에 노르웨이가 4-1로 승리하면서 명암이 엇갈렸다.

스페인, 도쿄올림픽 축구 본선 확보

스페인 21세 이하 대표팀은 23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2019 UEFA U-21 챔피언십 조별리그 A조 3차전서 폴란드에 5-0으로 승리했다. 스페인(+4)은 이탈리아(+3), 폴란드(-3)와 함께 2승1패를 기록했지만 골득실에 앞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도쿄 올림픽 유럽 지역 예선을 겸하고 있어 스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쿄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따낸 팀이 됐다. 스페인 축구가 올림픽 본선에 나선 것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8년 만이다.

조재완 해트트릭·정조국 결승골 ‘기적의 주연’

U-20 영웅 이광연 데뷔전 4골 먹었지만 조재완 골 시작으로 거릿말같은 뒤집기 완델손 3골...양팀 해트트릭 리그1 최초 수원 GK 노동건, 이동국에 킥 당당 실점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진기록이 나올 법한 경기가 등장했다. 23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17라운드 경기다. 종료 휘슬이 울린 뒤 경기장 전광판에는 5-4 스코어가 새겨졌다. 그것도 0-4에서 바뀌었다. 최근 폴란드에서 막을 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월드컵에서 엄청난 선방 쇼로 대한민국 U-20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새내기 골키퍼 이광연(강원FC)이 4골을 내주고도 팀의 기적과 같은 역전승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프로 데뷔무대,



0-4를 1-4로 만든 첫 만화같은 시작으로 기적같은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강원의 대역전극을 이끈 조재완.

이광연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전·후반 각각 두 골씩 허용하면서 쓰러린 현실 앞에 섰다. 완델손이 해트트릭을 올린 가운데 이석현이 한 골을 추가한 포항 스틸러스가 4-0까지 앞서며 승리를 목전에 뒀다. 그런데 강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후반 25분 조재완의 득점이 드라마의 출발이었다. 후반 33분 발렌티노스가 추가골을 넣었지만

프로축구 경기결과	▶ 21~23일
제주	제주 1 : 2 성남
진주	경남 1 : 1 인천
대구	대구 1 : 2 서울
춘천	강원 5 : 4 포항
전주	전북 1 : 1 수원

시간상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강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그것도 정규시간이 모두 흐른 뒤부터... 후반 46분과 48분 조재완이 연속 골을 터트려 동점을 만들더니 후반 50분 정조국이 결승골을 터트렸다.

양 팀이 특정 경기에서 나란히 해트트릭 쇼를 펼친 것은 K리그1 사상 처음이자 한국 프로축구 통산 세 번째다. 0-4를 5-4로 뒤집은 것은 프로축구 역사상 처음이다. 5경기 만

에 승리한 강원은 상위권 도약을 향한 본격 신호탄을 쏘아올린 반면 무승 행진이 5경기(1무4패)까지 이어진 포항은 험난한 중위권 레이스를 예고했다.

이날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대결은 1-1로 끝났다. 서로가 다른 이유로 베스트 멤버들을 대거 제외한 채 임한 치열한 혈투에서 전반 1분47초 만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다. 동료의 백패스를 처리하려던 수원 골키퍼 노동건이 찬 볼이 빠르게 문전 쇠도한 전북 '킥틴' 이동국의 얼굴을 맞고 골라인을 통과했다. 전북 통산 201호 득점포가 너무 허무하게 이뤄졌다.

수원의 동점골도 상대 실수에서 나왔다. 전북 수비진이 잠시 집중력을 잃은 틈을 타 불을 가로챈 타카트가 후반 26분 1-1을 만들었다. 전북은 후반 추가시간 김신욱의 헤딩슛이 골네트를 갈랐지만 VAR(비디오판독) 끝에 무효 처리돼 홈 7연승에 실패했다.

전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베트남 언론 “박항서 감독 몸값 최대 23억원 예상”

(연봉 14억원+올승 9억원)

박항서, 베트남 축구협회와 재계약 협상

VFF, 19일 계약연장 공식 레터 전달 몸값과 U-23 겸임 여부가 최대 관건 박항서 측 “많은 대화 후 신중히 검토”



박항서 감독

‘박항서 매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요즘 동남아시아 축구계의 핫이슈는 단연 베트남축구대표팀 박항서 감독(60)의 계약연장 여부다. 2017년 10월 베트남 A대표팀과 23세 이하(U-23)대표팀 통합 사령탑으로 부임한 그의 계약기간은 내년 1월 종료된다. 베트남축구협회(VFF)는 출전한 모든 대

회에서 성공을 거둔 박 감독과 계속 인연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특히 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박 감독에 대한 관심을 계속 표명하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재계약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일단 재계약 협상 테이블은 조만간 열릴 조짐이다. VFF는 박 감독 측에 계약연장

관련 공식 레터를 19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감독, 그와 꾸준히 한술밥을 먹으며 조력자 역할을 해온 이영진 수석코치(56)의 대리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준 디제이매니저먼트 대표는 23일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사안이라 구체적인 협상 시기와 세부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VFF가) 한국 코칭스태프와 계약연장 건을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건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VN익스프레스, 더 타오24 등 베트남 매체들은 지난 주말 내내 “다음주 협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전달했다. 물론 협상의 주도권은 박 감독이 쥐고 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세후 24만~

25만 달러(2억7900만~2억9000만 원) 선으로 추정되는 연봉은 최대 120만 달러(약 14억 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그 외 보너스 및 수당 등 옵션을 고려하면 VFF는 200만 달러(약 23억2000만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U-23대표팀 겸임에 대한 고민이다. 워낙 출전대회가 다양하다보니 교통정리가 불가피하다. 두 팀을 이 끌어가는 일이 버겁고 쉽지 않지만 장점이 많다. 세대교체와 다양한 선수 테스트를 아무런 잡음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대단한 매력이다. VFF는 박 감독의 재계약과는 별개로 이 수석코치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시간에 쫓겨 협상을 하지 않았다.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 박 감독 측의 설명이다. 남정현 기자